

광양시, 천만 관광객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밑그림

백운산·구봉산·섬진강권 등 3개 권역 관광 개발 정인화 시장 "권역별 특색 살려 시너지 효과 창출"

광양시가 민선 8기 미래 성장 핵심 동력으로 '관광'을 선정하고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총 3건의 용역보고회를 연속 개최했다.

'광양 힐링 수변길'은 금호동 무지개

다리-금호대교 1.94km 구간 해변에 힐링 수변길, 쉼터, 경관조명 등을 조성하는 34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중마동-금호동-태인동-배알도 섬정원을 연결하는 장기 계획도 준비 중이다.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섬진강 두꺼비 인도교'는 광양 매화마을과 하동 이화마을을 연결해 영·호남 화합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다리 위치는 섬진포구 안이 최



광양시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힐링 수변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총 3건의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적안으로 선정됐으며, 건립 시 약 383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342명의 고용 유발

이 예상된다.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구봉산전망대를 중심으로 고유 관광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수립해 세계인이 주목하는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구상을 두루 담은 프로젝트다.

특히 구봉산 관광단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구봉산 체형형 조형물 등 3대 관광 사이트를 연결할 구봉산 케이블카, 출렁다리, 알파인 슬라이드 외에도 연계방안 및 구봉산권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대거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Sunshine Fore Goldenway'를 비전으로 핵심 액터 시설을 구축해 ▲케이블카와 전망대를 활용한 산악경관 ▲출렁다리, 알파인코스터 등을 통한 산악레저 ▲숲속클럽핑, 어린이테

마파크를 이용한 산악문화 ▲점등마을, 본정마을에 있던 산악역사 등을 연계한 산악형 종합 관광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구봉산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는 민자를 유치해 추진될 계획으로 지난해 광양시와 ㈜LF리조트 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으며, ㈜LF리조트는 케이블카 등 설치에 500억원을 투자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관광의 밑그림이 점차 실현되면 백운산권, 구봉산권, 섬진강권 등 3개 권역의 고유성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종합관광개발사업이 연결돼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양철영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국회 방문...울포항 설계용역비 등 지역 현안 지원 요청

김철우 보성군수가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8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김철우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국가 예산 심의 단계의 핵심 창구인 박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문금주 예결위원, 이연희·안규백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2025년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울포항 국가어항 지정에 따른 설계용역비 건의(5억원) ▲보성 우산·외장 처리 분구 관로 정비(47억원) ▲별교 호동·동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84억원)사업 등이다.

특히 울포항은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보성군 최초 국가어항 예비 대상항으로 선정됨에 따라 총 445억원(국비 100%)을 투입해 항 내 기본 시설과 관광시설을 종합해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남해안 해양관광의 신드

롬을 이끌 울포항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울포항 설계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정수 여건 개선 및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을 위해 보성 우산·외장 처리 분구 관로 정비와 별교 호동·동막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필요성

도 강조했다.

김철우 군수는 "정부의 긴급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예산 편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계속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성=임병연 기자



김철우(왼쪽) 보성군수가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현안 국고사업을 건의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보성군 제공>

구북구 화순군수,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 방문

농업인 격려...최종 정산금 연말까지 지급

구북구 화순군수가 2024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장을 찾아 수매 현황을 살피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은 총 6천892t으로 40kg 기준 17만2천200포대다. 지난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도곡농협 라이스센터, 금호미곡 RPC, 능주농협 DSC, 동북농협 DSC에서 산물비 5만16천300

포대를 매입 완료했다. 일반벼 9만4천900포대는 지난 8일 이서면 3천546포대 매입을 시작으로 친환경 벼 2만40포대와 일정별로 이달 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품종은 새청무, 신동진 2개 품종이며,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 80kg)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중간 정산금 4만원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화순군은 아침밥 먹기 릴레이 캠페인, 화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의 시책 사업 추진을 통해 연간 화순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값 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구북구 군수는 "쌀값 하락 및 가을철 벼멸구, 호우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하까지 애써준 농업인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공공비축미곡 매입 마지막까지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군, AI 활용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 모색

Chat-GPT 활용 교육 진행

담양군은 "최근 담양농업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Chat-GPT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일상화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담양군의 행정업무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실무 적용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신현길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사는 생성 AI의 기본 개념과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담양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초거대 AI의 활용법을 익혀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에서는 Chat-G

PT의 작동 방식과 다양한 행정업무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문서 작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히 체험해 보며 친밀도를 높였다.

/담양=정승근 기자



"여수·광양·고흥·남해 통합 특례시 구축해야"

송하진 여수시의원 5분 발언서 제안... "지역소멸 공동 대응"

여수시의원 송하진 의원(무소속·미래통합당)은 최근 열린 제2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된 여수, 광양, 고흥, 경남남해 등 4개 시·군이 통합하고 '남해안권 신해양 중심 동서화합 특례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진정된 남해안권의 동서 화합을 위해 4개 지자체가 행정·경제·

문화·관광 분야를 망라하는 광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남해안권 주요 현안과 지역소멸 및 위기 극복 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경제 버팀목인 여수국가산단은 끝을 모를 불황으로 사양길을 걷고 있다"며 "지난해 지방세와 정부교부금 등 약 1천800억원의 지방세수 평가와 올해 역시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여수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

질 것"이라고 난감했다.

송 의원은 "남해안권 신해양 중심 동서화합 특례시" 계획

실현의 구체화를 위해 여수만을 중심으로 자동차전용도로, KTX 전라선, 연륙 연도교, 해저터널 등 접근성을 높이며 교통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남해안권 도시들이 행정·경제·생활·문화를 아우르는 공동체 구성에서 나아가 상호 협력 방안을 세워 실효성 있는 협약을 맺음으로써 동맹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순천시, 이즈미시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두부과자·매실양갱·곤약젤리 등 완판...매실꽃차 수출 계약도

순천시는 "최근 양일간 일본 이즈미시의 초청으로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이즈미시 대산업체'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즈미시 대산업체'는 이즈미시의 대표 축제로, 순천시는 이즈미시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순천시 농특산품관'을 운영해 지역 농특산품을 홍보했다.

지역 농가를 대표해 참여한 한솔영

농조합(대표 조춘식)과 순천엔매실(대표 장택원)은 다양한 꽃차, 청국장완, 두부과자, 매실양갱, 곤약젤리 등을 선보여 완판을 기록했다.

특히 매실꽃차는 현장에서 수출계약으로 이어져, 일본에 '순천의 맛, K-푸드'의 맛을 널리 알렸다.

'대산업체'에는 이즈미시 교류도시인 순천시와 함께 대만 푸리시가 지역 특산품을 홍보·판매하고, 일본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해 산업홍보 및 문화에

순천시장은 "앞으로도 이즈미시와 우정은 영원할 것이며, 양국의 협력으로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자"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와 이즈미시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흑두루미 월동지로 흑두루미 보전을 계기로 2009년 우호교류, 2012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2013년과 2023년 열린 정원박람회 방문, 이즈미시의 날 참석, 청소년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있다.

/순천=정기 기자



순천시가 자매도시 일본 이즈미시의 대표 축제 '이즈미시 대산업체'에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 제공>

장성군, 황룡강변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볼링장·탁구장·체육회관 등...내년 7월 착공·2026년 준공 목표

장성군은 18일 "장성읍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2천973㎡, 바닥면적 2천700㎡, 지상 2층 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체육관에는 볼링장, 탁구장, 체육회관 등이 들어서며 현재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장성군은 당초 2025년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생활체육

활성과 차원에서 볼링장을 짓기로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결을 받았지만, 건립부지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모여있는 만큼 시설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을 수용했다.

장성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인 '성장 장성' 디자인을 반영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실시설계와 재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건립을 추진한다. 2026년 10월로 예정된 생활체육대축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달 앞선 9월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설계비 지원을 요청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군민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태 기자